

은혜 한인교회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회복되어 땅 끝까지 빛을 발하자”



자녀들을 다윗처럼 키웁시다

⁴⁵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⁴⁶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줄 알게 하겠고 ⁴⁷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⁴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⁴⁹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⁵⁰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삼상 17:45-50]

1부 중보기도 : 목회 1팀 (7:30am~8:30am)

2부 중보기도 : 다비다 권사회 (9:20am~10:20am)

3부 중보기도 : 중보기도팀 (11:30am~13:00pm)

4부 중보기도 : 청년부팀 (2:00pm~3:30pm)

주일에배를 위한 기도

"여호와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사편 103 : 17)

1. 살아 계신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2. 5 월을 맞아, 은혜재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며, 생명의 빛 되시는 주님께서 이끄시고 가꾸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의로우신 하나님! 복음의 광채 앞에 모든 성도들이 압도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영적각성과 회개의 바람이 불어 부흥이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4. 팬데믹 기간에도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가족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셀모임과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온라인상으로 등록한 새가족들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중보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는 거룩한 중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1. 예배 찬송을 위한 기도 (1 부: 원상욱목사님, 2 & 3 부: 김대규목사님)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찌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찌어다" [시 96:9]

1. 찬양할 때, 입술을 통해 나오는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통해 표현되는 행위들이 주님을 높이는 몸짓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하며 찬양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옵시고 악한 영들과 죄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3. 찬양을 통해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받을 마음과 들을 귀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2. 예배 인도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이창석목사님, 김동철목사님, 이정호목사님)

- 사회 담당 목회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집례하게 하옵소서.
- 사도신경 암송을 통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확고한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3. 대표기도 장로님을 위한 기도 (채수전장로님, 박유진장로님, 권혁석장로님)

- 기도자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표기도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 회중의 마음을 담아 겸손히 주께 간구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4.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A. 담임 한기홍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 17:17]

1. 주일 강단을 거룩한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 될 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2.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곤핍한 자를 살리고 방향하는 영혼들을 고쳐 세우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3. “**자녀들을 다윗처럼 키웁시다**”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을 미리 성령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좋은 심령의 받아 되어 떨어지는 말씀마다 100 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시고, 다음세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준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4. 말씀을 통해,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비전이 선포되며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영혼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받아 말씀의 권능을 항상 누리는 은혜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5. 목사님의 가정을 먼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운책하심을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 받으신 은혜가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6.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예배의 부흥,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올해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영혼구원과 세계 선교 마무리를 위해 충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창립 39 주년 기념 축복성회

5/13(목)-16(주일), VC 본당.

주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자.”

강사: 한기홍담임목사님, 이재환선교사님, 박기호목사님

B.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ONLINE & OFFLINE 예배를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 헌신된 예배, 결단하는 예배, 삶으로 열매 맺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2.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부요함을 깨닫게 하셔서 신앙 인격의 변화와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C. 설교시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1.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비전을 깨닫는 지혜와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2.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믿음과 능력과 은사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3.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권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열을 뚫어 주옵소서.
4. 근신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통찰력을 부어주셔서 순종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5. 하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자로 변화되어 가정과 일터에서 새생명을 낳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 온라인 방송을 위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미디어 팀을 축복하시고 음향과 영상 관리자들이 섬세하게 예배를 섬기게 하옵소서.
- 온라인 시스템, 음향과 조명 등 모든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옵시고 예배 진행을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 날마다 창조적인 사역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5. 헌금시간을 위한 기도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후9:6]

1. 모든 재물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게 하옵소서(고후9:7).
2.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좇아 헌금하게 하옵소서(고후8:5).
3.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늘의 은총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팬데믹으로 힘든 가정과 기업을 위로하시고 전화위복의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4. 성도들의 헌신이 오병이어가 되어, 주의 나라와 몸된 제단과 선교지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6. 축도를 위한 기도

-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축복 기도가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 축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주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케 하옵소서. 아멘!

7. 예배 이후를 위한 기도 [다음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위한 기도]



- 주일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 일천번제를 통해 골방예배가 매일 훈련되게 하옵시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 모든 성도들이 주일예배와 금요성령집회, ^{3차}일천번제, 큐티, 가정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시사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 [5월 가정의 달] EM / 교육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1.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의 음성에 귀기울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5.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6. 어려서부터 거룩하게 구별 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7.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영역에 리더들로 세워져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8. Jesus' Light 자녀들도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 교회 환우들을 위한 기도

1.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찌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5:15-16) 말씀에 의지하여, 환우들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병에 하루 속히 벗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2. 육신과 정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가족들에게도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간병할 때 지치지 않게 하옵시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하여 주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3.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조울증,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4.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며 또한 나눔과 돌봄이 있는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8. 김광신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

1. 김광신 목사님 내외분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2. **성령님을 힘입어 전 세계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3. GMI 모든 제단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선교사역에 더욱 열심을 내어 헌신하며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4. 지금도 미개척, 미전도 무슬림 지역과 공산권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고 있는 GMI 선교사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5. 전 세계에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영육간에 탈진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더욱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필요마다 채워주시고 돌봐 주옵소서!
6. 선교사들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믿음을 날마다 더하시고, 직면하는 어려움과 방해들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게 하옵소서!

■ GMI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열린 손(잠언 3:27)과 열린 문(골 4:2-3)과 열린 생각(행 26:17)과
열린 마음(고후 4:6), 그리고 열린 하늘(사 45:8)을 허락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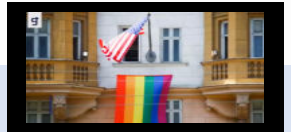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

GMI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한 금주의 기도

사역	사역	병환중이신 선교사님
● 구스타보 선교사님(C 국) 5 월에 예정되었던 선교지 입국이 8 월로 다시 연기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 남 00 선교사님(인도) 외국인 거주허가증을 위해/비자를 위한 서류 준비가 형통하도록/ 사역에 대한 구체적 응답/ 신학생들을 위해 ● 정 00 선교사님(파키스탄) 전도 컨퍼런스를 위해/ 비즈니스센터의 활성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자립선교를 위해	미얀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 현지에 계시는 4 가정의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 사태 진정과 인권 유린 및 살상을 그치시도록 ● 고난 당하는 가정들을 위해 ● 전쟁과 박해가 그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도록 ● 김인수 선교사님(필리핀) 건축 중인 교회의 완공/영적부흥/ 산속 원주민 성도들의 건강과 신앙생활/ 사역의 필요와 가족의 안전과 건강과 사랑	● 박성직 선교사님(C 국) - 지금 중환자실에서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고 계십니다. 심장 혈관이 85% 이상 막혔다고 지난주 목요일날 갑자기 스텐트 두개 수술했고 경과를 보면서 내일쯤 추가로 심장 스텐트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 네팔 이애신 선교사님- 지난 9 개월 동안 앓았던 악성 림프암의 6차 항암 결과 모든 림프암 세포들은 다 없어지고 항암제도 없는 혈액암은 그대로 있게 하셔서 날마다 제 날수를 계산하며 전능자만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첼라빈스크 김봉년 선교사님- 5 월 11 일부터 7 주간(주 5 일)전립선 암 방사선치료를 합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 터키 양창모 선교사님- 파킨슨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 터키 최지섭, 이해영 선교사님- 조직검사 결과 왼쪽 영치뼈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도록 ● 베트남 강 00 선교사님- 작년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서 쇠골에 핀을 받게 되었는데 쇠골이 속히 붙어서 핀을 제거하고 재혈을 통해 건강과 일상이 회복되기를 ● 알타이 최정진 선교사님- 걸으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제도가 왜곡되고 도전받는 시대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정제도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하옵소서.
2. 매년 5월 첫목요일 (금년은 5월 6일)은 국민들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National Day of Prayer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미국에 부흥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 포괄적은 LGBTQ 보호법안이 평등법 (Equality Act) 이라는 이름으로 연방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 상정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 하나님을 믿는 의원들이 불의한 법안들을 막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안들만 통과시키게 하옵소서 (금년에 출범한 연방의원 중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밝힌 의원들이 468 명, 88.1%입니다. 개신교 294 명, 천주교 158 명, 그리스정교 7 명, 몰몬교 9 명 그외 유대교 33 명, 모슬렘 3 명, 불교 2 명, 힌두교 2 명).
4. 하나님을 아는 분들로 구성된 연방대법원 판사들(천주교 6 명, 유대교 2 명, 개신교 1 명)이 성경과 헌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판결을 하게 하옵소서.



● 미 국무부, 전 세계 미 대사관에 동성애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게양 승인

- 성경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갈 1:7)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정면으로 반역하는 동성애를 끊임없이 노출시켜 영혼들을 교란시켜 죄를 익숙하게 만드는 사탄의 간계를 파해 주옵소서.
- 미국과 전 세계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로 세워지도록,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 올해만도 총기로 숨진 미국인 1만 3천 767 명

- 미 몬태나주, 신앙의 자유 보호하는 ‘종교자유회복법’ 통과: 미국 몬태나주가 국가 기관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제한할 때에는 그만큼의 상당한 이익을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종교자유회복법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이로써 미국에서 종교자유회복법을 통과시킨 22 번째 주가 됐다.

● 제 32 회, ‘90-hour Bible Reading Marathon’: 토요일 2시 부터 90 시간

DC성경읽기 릴레이(온라인 참여: <http://www.dcbiblemarathon.org/>)

1.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으로 이 땅의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2.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인 진리를 믿어 갈등이 생길 때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 됨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3. 사회적 거리두기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가정불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가족끼리 더 마음을 모아 위기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4. 이 땅에 모든 부모가 잉태된 생명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으로 받아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게 하옵소서.
5. 편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책임 있는 돌봄 속에 비전을 갖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6. 가정에서 남편들이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의 책임과 부담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남편들 되게 하옵소서.
7.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먼저 부모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수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일천번제 새벽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많은 사역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 교단 미주 노회 목회자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동안 펜데믹으로 오랫동안 같이 모이지 못하고 지내다가 현장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With Covid-19 시대의 목회와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고전 9:19-23)”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목회자들에게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합 여전도회(회장 박예순권사님) 성도님들과 은혜 실업인 선교회(회장 김영수장로님)에서 식사와 팔랑카로 섬겨주셔서 사랑이 풍성한 모임이 되어서 감사하였습니다.

화요일에는 목자 부흥의 밤을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넓은 친교실이 차게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방역수칙을 지키며 못 나오실 형편에 있는 목자님들은 온라인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CTS TV 방송국에서 ‘평등법! 그 이름에 가려진 실체’ 특별 좌담회 방송을 통해 평등법이 얼마나 잘못된 악법인지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원에서 곧 투표를 앞두고 있는 평등법이 통과되면 정말 미국은 급속하게 타락해 갈 것입니다. 최선으로 기도하며 이 성평등법이 잘못된 법임을 알리며 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꼭 막아야만 하기에 많은 교회들과 성도님들이 간절하게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부목자 세미나를 유튜브로 강의하였습니다.

양육과정들은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하면서 은혜 받으며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는 교회 정원에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 무지개 동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교회 정원에서 모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펜데믹으로 너무 오랜 시간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집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고, 교육부도 예배가 회복되도록 교역자들이 최선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도 맞고 코로나 상황은 확실하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일천번제 기도는 미래를 위한 저축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적극적으로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매일 바이블타임 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일천번제 새벽기도하시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한기홍 담임 목사 드림

‘예배는 모든 사람의 존재 목적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본능적인 욕구는 있지만 어느 분이 참 예배의 대상이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을 우상화하는 가하면 또한 정치가나 학자나 인기가수, 운동선수 등을 우상화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영생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들로부터 예배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6 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교회가 존재 하는 일차적인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자주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인지 스스로 살펴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참다운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돌아켜 볼 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원하시는 데 오늘날 우리는 예배시간에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 하시며 구체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역사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할 때 성령님께서서는 크게 역사 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들이 되지 아니하고 예배에 참여 하는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므로 함께 참다운 예배를 지향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승전고를 울리면서 높은 단위까지 올라가서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2 층 3 층 위에서 부터 꽃잎이 날라 오고, 승전가가 울려 퍼지게 됩니다. 매우 성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장군은 전쟁에서 패전해서 깃발은 다 찢어지고, 패잔병들을 모두 잃고 패전 장군으로서 와서 황제를 뵈게 되는데, 그는 면목 없이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승리의 삶을 살고 예배에 나와 주님과 축제의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중
김광신 목사 드림



유대인의 자녀교육

스탠포드 대학 심리학자 젠센은 유대 민족의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 우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다름아닌 숯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 교육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교육의 장은 가정이며, 교사는 부모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가정 교육은 신앙을 위한 것이지 지식이나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 스스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도록 환경을 만들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는 것 등을 보며 자녀들은 무의식중에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또 글을 배우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게 합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이다”라는 것이며, 둘째로 회당 중심은 이사할 때 회당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가가 우선 순위가 되는 것이며, 셋째로 랍비 중심은 자녀,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등 모든 문제를 랍비와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에는 랍비가 고용되어 있어 상담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것이 그들이 세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자녀 바르게 키우기

여덟 살 때까지 열등아였던 아인슈타인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많은 놀림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열다섯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뉴턴이나 스피노자, 데카르트의 책을 독파할 정도로 강한 지식욕을 가지고 있었다. 만약 선생님들이 그에게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기를 계속 강요했다면 지금의 아인슈타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 “형제의 개성을 비교하면 모두 살리지만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모두 죽인다.” 유대인들은 단순한 지능의 비교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 ‘남보다 뛰어나려 하지 말고 남과 다르게 되라’고 가르친다. 그들의 관심사는 아이의 지능이 아닌 개성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이 있다. 선한 일을 위해 아이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이 잘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1장학일 목사(예수마음교회)

